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

소유권 소송 줄이듯

월정사, 문화재청에 소유권 반환 요청 문화재청, 사찰과의 관계성 입증해야 영동 영국사·남원 실상사 등 소송 준비

양주 회암사가 소송을 통해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을 이후 대웅전 앞 석조보살좌상의 발굴조사를 마친 병향 월정사도 문화재청에 소유권 반환을 요청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법)은 3월 6일 문화재청(청장 유희준)에 공문을 보내 2002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지역 1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13건의 성보문화재에 대해 "소유자를 판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를 판명할 수 없는 경우를 적용한 잘못된 행정절차를 취했다"며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다.

당시 발굴조사가 월정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진행됐고 월정(月精)명 암막새 등 월정사 소유임을 증명하는 문화재가 출토되었지만 30일간의 공사기간 동안 월정사가 소유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건의 성보문화재가 국가에 귀속된 상태다.

문화재보호법과 유물문화법에 의하면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판명되지 않은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관할 경찰서장의 통지, 경찰서장의 14일간의 공고, 공고 이후 30일 이내에 국가에로의 귀속 및 발견자와 포장품의 소유자에 대한 가액보상의 절차나 소유권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을 보내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회신을 받지 못해 소유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회암사지 관련 소송이 계류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월정사 출토 유물에 대한 소유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월정사측에 소송을 지켜보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공고 사실 몰라 국가귀속 빈번

그러나 월정사는 2차 발굴 유물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에 소유권 신고를 했고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출토 유물과 사찰과의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기에 이번 공문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주 문화재청을 항의 방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출토 문화재의 경우 현행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되었다고 해도 사찰과의 관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문제는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발굴조사가 끝이 나면 문화재청은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장 명의로 30일간의 공람기간을 갖는다. 그러나 공람 공고를 해당 사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어 사찰에서 이 기간동안 소유권 신청을 못한 경우가 많다. 더불어 30일 안에 사찰과 출토문화재의 관계성을 밝히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존 사찰의 사



문화재청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주변 발굴조사를 벌였는데 출토유물에 관하여 사찰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사진은 2003년 2차 발굴조사 당시 모습.

찰 명(名)이 기록된 유물까지도 국가에 귀속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거 월정사와 현재 월정사 다른가

비록 사찰 대웅전 앞마당에서 출토된 문화재라 할지라도 사찰과 유물간의 관계를 문화재청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월정사의 경우도 대웅전 앞마당에서 발굴조사가 진행됐고 출토 문화재가 나왔지만 과거의 월정사와 지금의 월정사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월정사측에서는 수천년동안 월정사가 한 자리 있었고 스님들이 법맥을 이어오며 살아왔기에 출토 문화재가 제작되었을 당시의 월정사와 지금의 월정사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중 소유의 묘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경우 혈맥을 인정해 문중에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사찰의 경우 법맥

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체성과 전통을 찾으려는 사찰 측과 문화재 보호법을 준수하려는 문화재청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월정사 이외에도 공사기간 동안 적절한 절차에 의해 소유권 신고를 마친 영동 영국사, 남원 실상사, 울산 동축사 등도 조만간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어서 향후 사찰과 문화재청간의 이같은 분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재청은 2월 1일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성진)가 양주 회암사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출토 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월 28일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지가 현재의 회암사와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한국의 고평화' 한눈에

고평화박물관 소장품 도록 발간

한국의 고평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록이 발간됐다. 원주 치악산 명주사주지 선학 고평화 박물관은 최근 소장품 도록 집인 <한국의 고평화>를 편찬했다.

고평화 박물관은 그동안 목판 원본, 목판본 고서, 민화 판화, 중국 년화, 일본 우끼요에, 티벳 판화양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고평화 3,500여점을 소장한 고평화 분야



'간경도감관 변상도' 부분

국내 최고의 박물관이다.

이번에 발간된 도록집에는 삼화 판화와 목판으로 찍혀진 문양 판화, 세화를 비롯

한 민화 판화 등 우리나라의 고평화가 삼화의 세계, 문양의 세계, 판화의 세계 등 3개 부분으로 분류되어 사진과 함께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선학 스님은 "우리선조들은 유불선 삼교를 전파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판 작품을 남겼다"며 "그러나 선조들의 천란한 업적과 예술의 맥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고평화 수집을 시작했고 향후 소장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동양의 고평화 시리즈를 연차적으로 도록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43>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염두에 둔 '웰빙'이 중요한 코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 같은 관심은 뇌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뇌, 마지막 남은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되었던 인체의 부분이 건강의 영역으로 집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보를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여 기억하기도 하고, 호르몬을 만들어 장기의 각 부분이 동작을 하도록 하기도 하고, 무의식의 상태에서 숨도 쉴 수 있게 하는 뇌는 이제 더 이상 의사나 과학자의 영역이 아닌 일반인의 관심의 영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뇌의 의식이 갖는 심층적 구조에 대해서 탐구한 종교라면 단연 불교를 꼽

해서 나침반(N과 S극)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원리로, 장치에 쏘여진 자기장에 의해 우리 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의 수소 핵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수소의 핵은 자체가 자전(스핀이라고 한다)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 자전에 의해서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다. 공명장치에서 쏘여진 자기장에 의해서 정렬된 핵의 자전이 외부자기장의 없어짐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신호를 내게 되는데, 이 신호를 받아서 컴퓨터로 처리해서 원하는 인체의 부분을 탐지하는 것이 자기공명 영상장치의 원리이다.

뇌의 부분마다 물의 밀도가 다를 것이므로, 다른 크기의 신호로부터 각 부분을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약물에 의

뇌 절개 않고도 구조와 활동 알 수 있어 내면의 소리 영상화할 날도 오지 않을까

을 수 있다. 안·이·비·설·신·의 각각을 나리는 의식으로 발전시키는 의식(마라야식), 그리고 이보다 더 심층적인 구조인 아뢰아식까지 의식의 구조를 계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뇌의 구조나 활동을 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 뇌 과학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뇌는 신체의 가장 많은 피가 돌아가고 있고(인체의 20% 이상의 산소를 사용) 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 신경 세포 다발로 되어 있어서 함부로 열어 보거나, 쉽게 손을 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수술을 통해 절개하지 않고 쉽게 구조나 활동을 보는 방법으로 자기공명 영상장치를 들 수 있다.

뇌에 고장이 난 환자가 드림통과 같은 장치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장이 뇌를 스캔하게 된다. 지구의 자기장에 의

한 변화, 심지어는 잠선 등의 명상 효과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는 명상이 뇌의 긍정적 사고를 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며, 이 활성화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 지능, 심지어는 면역체계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건강해 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전에는 불치의 병, 아니 약마의 저주로 여겨졌던 정신병을 비롯한 뇌질환의 이유와 치료법 또한 드러나고 있다. 이대로라면 종교적인 부분, 즉 종교적인 활동에서 느끼는 내면의 소리들을 영상화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아무리 정신의 변화를 영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영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림자일지 모르나.

이러한 그림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 '나'는 역시 영상화시킬 수 없다는 <신심명>의 한 구절을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언제 들어도 다시 듣고 싶은 노래 · 언제 보아도 다시 보고 싶은 얼굴
김병조의 다시 듣고 싶은 노래

매일 저녁 8시 5분
세상사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가 전해집니다.

www.b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 / 광주 89.7 Mhz / 대구 94.5 Mhz / 청주 96.7 Mhz / 춘천 100.1 Mhz / 안동 97.7 Mhz / 포항 105.5 Mhz